

“국공립 사범대 6년제 추진”

사범대 학장단, 정부 협의·법 개정후 2011년 도입

교육부, 2010년 최종 결정

서울대 사범대(학장 조영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국공립대학의 사범대가 종합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학제로 6년제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사대가 2001년부터 연구해온 이 방안은 지난 9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전국 13개 국공립대학 학장협의회(회장 황석근 경북대 학장)에서 공통의 합의안으로 채택됐다고 조영달 학장은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대의 수학 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정원의 50%는 대학 1학년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대학 졸업자 중

에서 5학년으로 선발하게 된다. 졸업 요건으로 석사수준의 논문을 의무화하고 6년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또 교수회법·교직윤리 탐구 등 사범대 교양과정을 신설하고 교육봉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실습을 현행 5주 내외에서 1학기로 늘리고 교육방법을 융합한 교과전문적 교육과정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6년제 교원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돼 현재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학장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과 함께 앞으로 사립대학 사대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10년까지 최종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6년제로 전환되면 전문성이 높일 수 있지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사업공원 새 단장

14일 광주 ‘사업공원’에 새로 설치된 목재 보행로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15억원을 들여 공원 통과도로인 옛 KBS~호남신학대학 구간(500m)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목재 보행도로를 설치하고 도로변 200m 구간에 전통형식의 돌담을 쌓았다.

/나명주기자 mnja@kwangju.co.kr

나주서 세균성 이질 집단 발병

유치원생 15명 입원 치료…역학조사 나서

나주에서 세균성 이질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나주시 H유치원에 다니는 김군(4)군

이 설사와 복통, 고열 증세를 보인 뒤 같은 유치원과 인근 어린이집에서 유사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14일 현재 세균성 이질로 판명된 환자는 김군 등 7명이며 같은 유치원

어린이 8명이 동일한 증세를 보여 모두 15명이 나주시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세균성 이질 양성 반응을 보인 확진환자 등을 격리 치료하는 한편 이들의 가족과 같은 유치원생 등 모두 153명의 가검률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민주총 광주 도심집회 허용

경찰, 질서 유지 조건부로

시민·상인, 교통체증 우려

경찰이 15일 광주 도심에서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질서유지 등의 조건으로 허용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이하 민주노총) 조합원 1천여명은 15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옛 전남도청과 옥린우리당 전남도당까지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노사관계로 드립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 보장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기아차 광주공장(6천여명) ▲현대자동차 정비(150여명) 등 광주지역 9개 사업장 8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시간동안 부분 파업을 별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초 금남로의 교통체증이 우려돼 행진을 막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노총의 평화적 집회를 조건으로 행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남로는 시간당 3천 5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20개 노선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교통혼잡

구간”이라면서 “민주노총이 행진을 강행하면 심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막기보다는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측은 “이날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알리려는 의도일 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의도는 없다”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과 충장로·금남로 상인들은 “1천여명이 도심 차로를 막고 시위를 하는데 교통 체증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등)은 ‘경찰이 도심 및 주요 도로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금남로(옛 도청~광주은행) ▲충장로(남광주 4거리~유동 4거리) ▲전변로(구동 실내체육관~옛 도청) ▲중앙로(광주고~월산로터리) ▲독립로(광주역~대성초교 4거리) ▲제봉로(전남대의 대 5거리~광산동) 등 7곳이 제한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지정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불법·폭력시위 반성합니다”

5월단체 공식 사과

5월 단체가 국가보훈처 앞에서 벌인 불법 시위(본보 11월11일자 3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5·18구속부상자회’(회장 직무대행 강행욱) 등 5월 단체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일 ‘5·18 기자 회생자 대책위원회’ 회원 120명은 지난 10일 국가보훈처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는 중 불법 시위용품을 사용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5월 단체는 또 “집회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를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하더라도 일부 참가자들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입장을 표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사)5·18구속부상자회’ 소속인 ‘5·18 기타 회생자 대책위원회’ 회원 120명은 지난 10일 국가보훈처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회원 1명이 분신을 기도하고 경찰과 충돌, 44명이 연행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전남 초등교사 임용시험장 동신중·여중으로 변경

전남도교육청은 14일 2007학년도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 치료)교사 및 영양교사 임용시험에 예상보다 많은 응시자가 몰리자 1차 시험장소를 당초 광주교대에서 광주동신중과 동신여중으로 변경했다.

시험은 19일 오전 9시~오후 1시20

분에 치러진다. 전남도교육청의 교사 임용시험에는 489명 모집에 1천945명이 지원해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ne.go.kr)를 참고하면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채용인원이 줄었으나, 전남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어서 응시생들이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추위 속 눈 올까”
찬 바람이 부는 가운데 비 또는 눈이 오겠다.

11월 15일
(음 9월 25일)
◇전국날씨



광주 오늘 첫 눈 가능성

아침 최저 1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비가 온다면 5mm内外, 눈이 온다면 1cm 이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5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13도로 예측됐으며,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광주·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 보다 2~3도 낮은 1~7도의 분포를 보이겠다”면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새벽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눈이 내릴 수

사행성 게임 내년 4월까지 단속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사라져 가던 사행성 게임장과 PC방들이 변칙 또는 시간 외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되는 내년 4월 28일까지 불법 영업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14일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기간으로 검·경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예시와 연타 기능이 있는) 불법 게임을 제공해 얻은 수익 중 1천720억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했다. 상품권 폐지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1년 간 단속 실적은 2005년 한해 동안 몰수·추징한 29억2천52만원의 5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이 기간에 사행성 게임장 223개 업소와 사행성 PC방 196개 업소를 단속해 1천196명을 입건하고 415명을 구속했다.

같은 기간에 경찰은 3만7천여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7만여명을 입건하고 2천900여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전국 286개 폭력 조직 가운데 100여개 조직이 사행성 게임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 중 14개 조직은 9개 상품권업체, 전국 15개 종판 운영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